

◎昌寧 桂南里 古墳發掘

盜掘未遂墳의 뒷收拾을 위하여 文化財委員會에서 그發掘을 決議한 昌寧古墳은 文化財管理局豫算으로 實施하기로 되어 十一月六일부터 着手되어 進行中에 있다. 同發掘은 文化財委員會 李弘植, 秦弘愛 兩委員 擔當下에 慶北大에서 尹容鎮 專門委員이 參加했으며 文化財管理局에서는 姜仁求 學藝士 등이 이發掘에 參加했다.

康津 沙堂里窯址出土 高麗 靑磁罇

崔 淳 雨

—第八卷 第一二號 通卷八十九號—

一九六四年 가을 康津에서 高麗靑磁瓦窯址가 發見되어 靑色靑磁로 된 各種靑磁瓦와 함께 多様な 靑磁製品들이 出土됨에 따라 나는 은근히 建築部材로서 쓰였을 高麗靑磁罇의 出現을 期待했었다. 이러한 期待는 莫然한 것이라기 보다는 新羅時代 以來로 綠釉罇이 存在했었다는 點과 開城 興王寺址 등에서 玻璃釉의 코발트色 施釉罇^①이 發見되었던 事實, 그리고 靑磁瓦의 存在로 미루어 보아 이것은 充分히 期待할만한 일이었다.

一九六六年 가을 發掘調査次 다시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에 머무르는 동안 나는 同部落 李龍熙氏가 隣近農地안에 있는 靑磁窯址破片中에서 採集한 平板으로 된 靑磁陶板 一枚를 保管하고 있음을 發見, 이를 觀察한 바 이것이 틀림없는 高麗靑磁罇으로 判斷되었음으로 이 破片을 同氏로부터 引受해 두었던 것이다.

一

高麗靑磁罇의 存在에 關係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고 비록 이 靑

磁罇片의 出土地點

이 아직 發掘調査의

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沙堂里 靑

磁窯址出土 破片으

로서 靑磁瓦의 存在

와 함께 매우 注目

할만한 最新資料임

에는 틀림이 없다.

現在 이 破片이 남

아 있는 部分은 一

邊뿐이며 그 길이는

一七·五cm로서 조

그마한 寸수의 罇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

으나 이것이 原來長

方形의 罇이었는데

正方形의 罇이 었는

지 判定할 수는 없다.

그러나 一九六五年 겨울 全北 益山 王宮里 五層

石塔 補修當時 그 周邊調査에서 發見된 無釉罇은 長邊의 길이가 거의 이

와 비슷한 長方形 罇이었는데 보아 이 靑磁罇片의 原形은 將次의 調査

에 期待하고자 한다. 이 靑磁罇片의 두께는 最厚部에서 一·三cm이며 表

面에만 두터우게 靑磁釉를 施釉했고 切損面을 除外한 三面과 바닥은 紺

붉은 鐵呈色을 나타낸 素地이다. 切損面으로 보면 胎質이 若干 粗荒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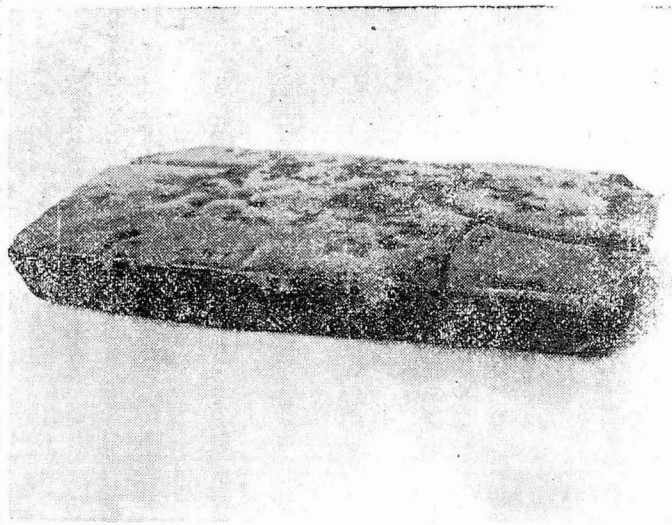
느낌이 있는 것은 埴材로서는 硬度を 計算한 耐火物의 混入이 있었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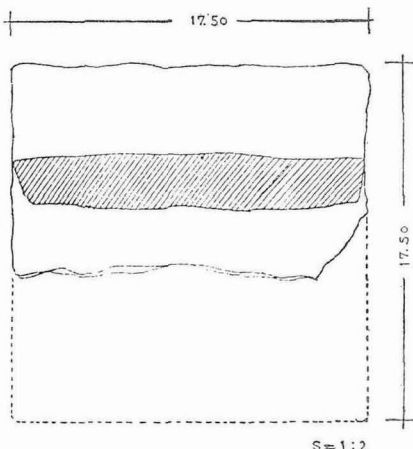
이 아닌가 한다. 原形대로 남아 있는 三側邊의 斷面은 모두 아래로 좁

혀져서 이미 알려져 있는 前記 益山 王宮里塔周邊에서 黃壽永 教授 等に

依하여 調査發掘한 長方形 無釉罇과 一九六七年 가을 筆者等이 調査한

京畿道 揚州郡 檜岩寺址에서 出土된 方形 罇의 前例와 함께 古代以來 一





部 韓國國에 이러한 樣式
이 傳承되어 왔음을 보여 주
고 있다.

三

青磁釉藥은 透明度가 얇
고 두꺼워서 發色이 좋다
고는 할 수 없으나 翡色青
磁瓦로 지붕을 이은 바에
는 青磁博으로 步廊이나 建
物基壇의 屋外周邊을 깔고
실은 意慾이 宜當이었으리

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高麗毅宗朝에 別宮 養怡亭을 葺었던 青磁瓦를
生産한 것으로 推斷된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 青磁窯址에서 이 青磁博片
이 發見되었다는 것은 相互關連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싶으며 따라서
이 青磁博의 年代도 이와 同軌에 놓고 보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

註 一九四七年 秦弘燮 黃壽永 筆者等이 開豊郡 進鳳面 興旺里 興王寺
址 踏査中 同寺址 西南隅堂殿址에서 코발트色 玻璃釉畫紋博을 採集
했다.

「黃壽永·高麗興王寺址의 調査」—— 白性郁博士頌壽紀念佛敎學論文
集 參照

陰城 景湖亭의

三層石塔과 平谷里菩薩立像

—— 陰城邑內의 佛蹟 其二 ——

鄭 永 鎬

陰城邑內의 唯一한 遊園地로 이름난 景湖亭 前庭에 三層石塔 一基가

第八卷 第十二號 通卷八十九號

現存한다. 이 石塔은 邑 東便 部落인 平谷里에서 八·一五 解放前에 移
建된 것이라 하는데 平谷里 塔亭部 落에는 朴海楨氏가 經營하는 果樹園이
있고 이 밭가운데가 原位置라 한다. 現在 이 곳에는 小屋內에 奉安된 石
造菩薩立像이 遺存하며 이들 塔像에 關하여는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九〇頁에 簡單한 記錄이 보이는데 이에 依하면 景湖亭의 石塔이 이 곳
에서 옮겨졌다고 하는 朴氏의 證言이 더욱 明白해 진다.

一、景湖亭 三層石塔

現 全高 三·八m의 一般型 石塔으로 單層基壇上에 塔身을 받고 있
다. 基壇部는 方形 一枚石의 地臺上面에 높은 角形받침 一段을 刻出하고
兩隅柱를 彫出한 面石을 놓았으며 그 위에 甲石一枚가 놓였는데 副椽은
없고 上面에는 角形一段의 塔身받침을 마련하였다. 各層塔身은 一石으로
서 兩隅柱가 刻出되었으며 屋蓋石은 받침이 三段식이고 추녀에 落水 홈
은 없다. 落水面이 平薄한 편이며 轉角의 反轉도 輕快한데 屋蓋上面에 屋
身받침이 一段도 없음을 時代의 降下를 말한다 하겠다. 三層屋蓋石 上面
中央에는 擦柱圓孔이 있으며 相輪部는 缺失되고 現在 露盤部에 圓形의
蓮華臺石이 놓였는데 이것은 石燈의 上臺石으로 推測되었다.

石塔의 基壇部나 屋蓋石等 各部의 樣式手法으로 보아 建立年代는 高
麗中期로 推定된다. 實測值(cm)는

- 地臺石一邊長 一六二 高二八·五
 - 基壇面石 高七八 幅八八·五 隅柱幅 一五·五
 - 甲石一邊長 一三五 厚 一四 初層塔身高 五九 幅六一 隅柱幅 一三
 - 二層塔身高 三四幅 四九 隅柱幅 一一·五
 - 三層塔身高 二四·五 幅 四四
 - 隅柱幅 一〇 初層屋蓋石長 一一〇 厚 五〇
 - 二層屋蓋石長 一一一 厚 四七
 - 三層屋蓋石長 九四·五 厚 三七
- 이다. 한편 石燈上臺石의 上面徑은 四八cm 全厚 二·三cm이며 下面에는 八
角받침 帶內(一邊長 一〇cm) 圓孔(徑 一四 深 一〇)이 있음을 附言한다.
- 二、平谷里 菩薩立像
- 上記 朴海楨氏가 近年에 洋鐵小屋을 新築하여 그 안에 奉安하고 있는